

해남군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어요”

빈집철거·화장실·주택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 비용 지원 “체계적인 정비 통해 살기좋은 농어촌 환경조성 위해 노력”

해남군이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1억 8,0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해 빈집철거 80동을 비롯해 화장실개량 41동, 농촌주택개량사업 52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빈집철거 지원사업은 사용하지 않거나 주민이 거주하지 않아 방치된 빈집을 철거시 최대 150만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화장실개량 지원사업은 재래식 화장실이나 실외의 노후 화장실 등을 수세식으로 개량하게 된다. 가구당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한 주택 개

량과 무주택자의 주택 건축을 지원한다. 신축시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시 최대 1억원의 용자(고정금리 연 2%) 지원과 취득세 280만원 한도 내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주어진다.

특히 해남군은 올해말까지 군 전역의 빈집의 소재 현황,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해 빈집실태조사 용역을 실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빈집 철거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귀향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에게 제공되는 빈집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최근 3년간 빈집철거 300동, 화



장흥군 134동, 주택개량 209동을 지원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낙후된 주택 등을 철거 및 개량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

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빈집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완도군, 행안부 공모 선정 약산면에 ‘마을 공방’ 조성

완도군이 행안부 주관 ‘마을 공방 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약산면 장용리 일원에 주민 공동체 활동과 주민 소득 창출 공간으로 활용할 ‘마을 공방’을 조성한다.

마을 공방 육성 사업은 경기 침체·인구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소득 창출을 위한 자립 기반 구축과 주민 간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모는 ▲주민 소통과 갈등 예방을 위한 주민 소통형 ▲마을 공동체의 자립 지원을 위한 소득 기반형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기존 마을 공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됐으며, 완도군은 ‘주민 공동체 소통 공간 제공 및 소득 창출을 위한 심마을 카페 조성’을 사업 계획으로 제안해 선정됐다.

마을 공방이자 심마을 카페는 약산 장용리에 위치한 약 132㎡의 유휴 시설을 리모델링해 조성되며 내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약산면은 상가가 밀집되고 유휴 인구가 많은 면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차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아쉬워했던 터라 주민들은 마을 공방 선정 소식에 큰 호응을 보이고 있다.

공방이 문을 열면 카페 운영 및 전남 문화재단과 연계 전시회 개최를 통한 문화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공방 인근 부지는 약산권역 거점 개발 사업으로 헬스장, 체육관, 어린이 놀이터 등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설 예정으로 심마을 카페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전남문화재단이 약산면에서 추진 중인 ‘아르코 공공 예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 대표 문화 공간으로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방은 약산면 새마을회, 부녀회원 구성원을 주축으로 한 마을공방운영협의회의 회에서 운영하고, 운영 수익금은 취약계층에게 도시락 배달, 집 고쳐주기, 디딤판 설치 사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쓰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유휴 재산을 활용해 주민이 소통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공모 사업에 도전했다”라며 “심마을 카페 운영을 통해 활력 있는 공동체 조성 및 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강진군, 한우 농가 경쟁력 제고 집중 교육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한우 최고위 과정 실시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강진군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2022년 지역특화품목 한우 최고위 과정을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한우 최고위 과정은 최근 급증하는 사료값 대책, 한우 질병과 치료, 한우 육종개량 및 상위 1% 한우 사육 농가의 사례 발표 등의 내용으로 짧은 기간 내 핵심 사육 기술, 시장 변화 대응 방안 등을 한우 농가에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 과정은 지난 17년간 강진군민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온 녹색문화대학 친환경 한우 과정 수료생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녹색문화대학 한우 과정 수료 기간이 경과하면서 수료생들의 재교육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

다. 이번 과정을 통해 수료생 간 정보 교환의 장 마련과 변화하는 시장 대응이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올리게 됐다.

특히 강진원 강진군수는 교육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전국 한우 사육 두수가 2022년에는 354만 두, 2023년에는 357만 4천 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제시하며, “한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와 사료값 상승에 따른 생산비 가중으로 한우 사육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자질이 떨어지는 한우 도태를 통한 육질 고급화와 사료비 절감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한우 사육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 용두농협, 농업인행복버스·이동상담실 운영

장흥군 용두농협(조합장 백찬인)은 지난 15일 관내 농업인, 소외계층 등 조합원 650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농업인행복버스’와 ‘이동상담실’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병원장 이정환) 의료진이 참여해 척추·관절질환 건강상담과 침, 뜸, 부황, 물리치료 등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 장수사진을 촬영하고 액자사진을 제공하였으며, 개인별 검안 후 맞춤형 돋보기를 제공하였다.

의료 진료를 받은 농업인은 “관절이 아파도 병

원이 멀다보니 찾아가기 마땅치 않아 파스에 의지해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의료진이 직접 찾아와 진료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진행된 ‘농협 이동상담실’에서는 법률·소비자 분야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에서 초빙한 전문위원들은 생활 법률, 노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다양한 피해 사례를 통한 대처요령 등을 주제로 유익하고 흥미로운 강의와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고충에 대한 개인별 맞춤 상담을 진행하였다.

장흥=김도영기자

진도군, 모든 군민 여객선 운임 50% 지원

진도군이 전체 군민들을 대상으로 조도면역을 운행하는 여객선 요금의 50%를 지난 7월부터 할인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표를 구매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을 통해 섬을 왕래하는 진도군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과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진도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할인 대상 여객선은 새섬두레도, 한림페리11호, 가사페리호, 섬사망 9호·10호·13호 등 조도면 관내를 운행하는 여객선 전체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섬 주민이 아닌 진도군민들에게도 조도면역을 운행하는 여객선의 운임을 지원해 군민들의 해상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섬 관광 이용을 촉진시켜 섬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